



급식장소

이런 곳에서 밥먹고 싶어요!



조용하고 외부 노출이 적은 장소 사람들의 통행이 적고, 고양이가 안정감을 느낄 수 있는 곳이 좋아요.

깨끗한 밥그릇 세척이 쉬운 밥그릇이나 먹인 후 수거할 수 있는 일회용 종이 용기를 사용하세요.

소유자·관리자 동의 필수 공공장소나 타인의 땅을 사용할 때에는 반드시 관리자나 소유자의 동의를 받아야 합니다.

이런 곳에서 밥 먹고 싶지 않아요!



땅바닥에 급여된 먹이 먼지와 오염물질이 섞이기 쉬워 고양이의 위생과 건강에 좋지 않습니다.

차량 아래, 주차장 엔진룸에 들어가 다치거나, 차량 손상·교통사고의 위험이 있습니다.

도로변이나 차도 근처 소음과 사고 위험이 높아 고양이의 안전을 지킬 수 없습니다.

어린이 놀이터, 병원 주변 배변 습성 때문에 위생 문제와 주민 불편이 생길 수 있습니다.

야생동물 보호구역 고양이가 조류·소형동물을 사냥할 수 있으므로, 생태·경관 보전지역이나 습지보호지역에서는 급여하지 않습니다.

봉지밥 고양이는 봉지와 밥을 구분하지 못해 비닐을 함께 삼킬 수 있습니다. 이는 장폐색이나 질식 등 치명적인 위험으로 이어질 수 있어요.



길고양이 우리 동네의 작은 이웃

길고양이란?

- 도심이나 마을에서 사람 곁에 스스로 살아가는 고양이예요.
주인은 없지만, 사람의 생활 속에서 먹이를 얻고 터전을 지키는 우리 동네의 작고 독립적인 이웃입니다.

알고 보면 우리 동네 지킴이, 길고양이!

- 길고양이는 도심 속의 작은 환경 파수꾼이에요. 쥐나 해충을 잡아 우리 동네를 더 깨끗하고 안전하게 만들어 줍니다. 눈에 잘 띄지 않지만, 도시의 균형을 지켜주는 고마운 존재예요.

왜 돌봐야 할까?

- 길 위의 냥이들도 따뜻한 밥 한 끼와 깨끗한 물이 필요해요. 조금의 관심과 정성으로 고양이의 삶이 달라지고 사람과 고양이 모두가 행복한 마을이 될 수 있습니다.

우리 곁의 또 다른 가족

- 반려묘, 유기묘, 길고양이 모두 같은 '고양이'예요. 사는 곳이 다를 뿐, 모두 사랑받을 자격이 있는 생명이지요. 따뜻한 시선 하나가 길 위의 하루를 바꿔줄 거예요.



길고양이 밥 주는 3가지 약속

책임감

시작했으면 꾸준히! 중성화, 청결, 건강까지 함께 챙기며 감당 가능한 범위에서 돌봐요.

규칙성

정해진 시간·장소에서 적당량만 급여해요. 돌보는 냥이를 파악하고 중복 급여는 피해주세요.

청결성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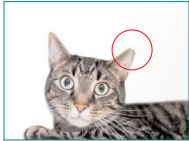
먹이는 그릇에 담아 깨끗하게, 먹은 뒤엔 잔여물과 쓰레기를 바로 정리! 깔끔한 밥자리가 냥이도, 이웃도 행복하게 해요.





길고양이 중성화 (TNR)

- TNR이란 고양이를 포획(Trap) → 중성화 수술(Neuter) → 다시 방사(Return) 하는 과정이에요.
- 이 과정을 통해 새끼 출산을 막고, 발정기 울음소리·싸움냄새를 줄일 수 있어요. 또한 자궁염고환암 같은 질병 예방 효과도 있어 고양이의 건강과 마을의 평화를 함께 지켜줍니다.



중성화된 고양이 : 귀 끝에 잘린 표시



중성화되지 않은 고양이

누가 할 수 있나요?

- 길고양이를 돌보는 사람이라면 누구나 가능해요.
- 돌보미가 아니라도, 주변에 중성화되지 않은 고양이가 있다면 지자체에 직접 신청할 수 있어요.

함께 하면 더 효과적이에요!

- 내 고양이만이 아니라, 주변 무리(군집)를 함께 중성화하면 개체수 조절과 갈등 감소 효과가 커져요.
- 이웃 돌보미들과 소통해 협력 중성화를 진행해요.

어떻게 진행되나요?

고양이의 건강 상태와 임신 여부를 살펴봐요. ▶ 중성화가 필요하다면 지자체에 신청해요. ▶ 지자체는 포획자와 지정 동물병원을 통해 수술을 진행해요. ▶ 수술 후 회복 기간을 거쳐 원래 장소로 돌아갑니다.

신청 방법 누구나 신청 가능!

길고양이 돌보미뿐 아니라 주민 누구나 지자체를 통해 중성화 지원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고양이 위치와 특징 확인 자주 보이는 장소와 외형적 특징(털색, 체형 등)을 기록해 뒹요.

사진·영상 준비 신청 시 고양이의 사진이나 짧은 영상 첨부 시 포획과 수술에 도움이 됩니다.

신청 및 문의의 사·군·구 홈페이지에서 '길고양이 중성화 수술 지원사업'을 확인하거나, 동물보호 담당 부서에 문의하세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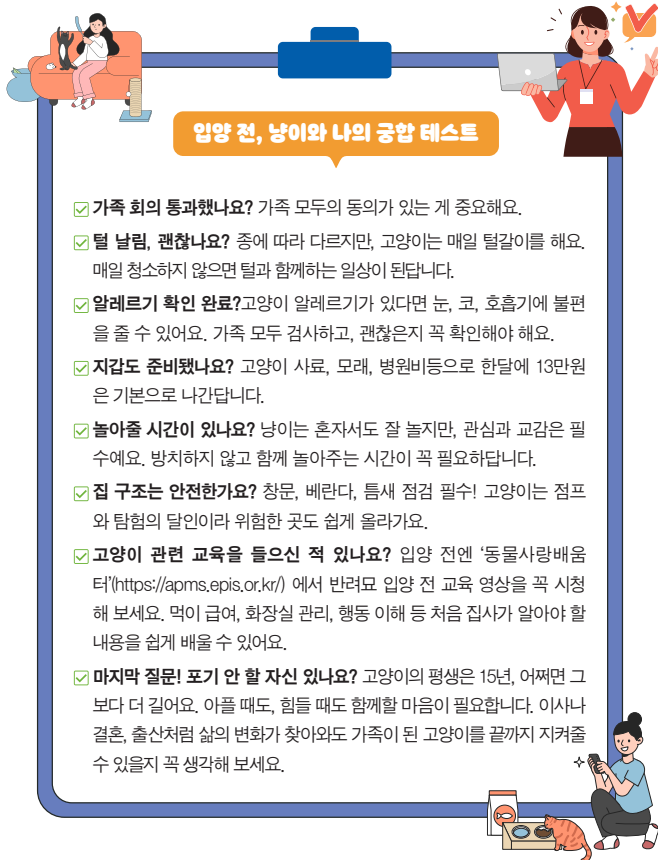
- 국가동물보호정보시스템 ▶ 알람·자료 ▶ 지자체 담당부서 안내
- 국번 없이 120 (다산콜센터)



아기 고양이를 발견했다면?

먼저 살펴보기

- 새끼 고양이가 혼자 있어도 바로 구조하지 마세요. 어미가 먹이를 구하러 갔거나 이동 중일 수 있습니다.
- 너무 가까이 다가가면 어미가 돌아오지 못할 수 있으니 거리를 두고 조용히 살펴봐 주세요.
- 가까이 다가가거나 만지지 말고, 거리를 두고 조용히 관찰해 주세요. 사람 냄새가 묻으면 어미가 접근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 잠시 후 다시 봤을 때 새끼들이 모여 잠들어 있다면, 어미가 다녀간 거예요.
- 12시간 이상 어미가 돌아오지 않거나, 사고 흔적·심한 외상이 있을 경우에는 즉시 구조가 필요합니다.



입양 전, 양아와 나의 궁합 테스트

- ✔ **가족 회의 통과했나요?** 가족 모두의 동의가 있는 게 중요해요.
- ✔ **털 날림, 낯참나요?** 종에 따라 다르지만, 고양이는 매일 털갈이를 해요. 매일 청소하지 않으면 털과 함께하는 일상이 됩니다.
- ✔ **알레르기 확인 완료?** 고양이 알레르기가 있다면 눈, 코, 호흡기에 불편을 줄 수 있어요. 가족 모두 검사하고, 낯참은지 꼭 확인해야 해요.
- ✔ **지갑도 준비했나요?** 고양이 사료, 모래, 병원비등으로 한달에 13만원 은 기본으로 나갑니다.
- ✔ **놀이줄 시간이 있나요?** 양아는 혼자서도 잘 놀지만, 관심과 교감은 필수예요. 방치하지 않고 함께 놀아주는 시간이 꼭 필요하답니다.
- ✔ **집 구조는 안전한가요?** 창문, 베란다, 틈새 점검 필수! 고양이는 점프와 탐험의 달인이라 위험한 곳도 쉽게 올라가요.
- ✔ **고양이 관련 교육을 들으신 적 있나요?** 입양 전엔 '동물사랑배움터'(https://apms.epis.or.kr/) 에서 반려로 입양 전 교육 영상을 꼭 시청해 보세요. 먹이 급여, 화장실 관리, 행동 이해 등 처음 집사가 알아야 할 내용을 쉽게 배울 수 있어요.
- ✔ **마지막 질문! 포기 안 할 자신 있나요?** 고양이의 평생은 15년, 어쩌면 그보다 더 길어요. 아플 때도, 힘들 때도 함께할 마음이 필요하답니다. 이사나 결혼, 출산처럼 삶의 변화가 찾아와도 가족이 된 고양이를 끝까지 지켜줄 수 있을지 꼭 생각해 보세요.



길고양이 돌봄 중 갈등 예방과 대응 안내

차량 근처 밥자리 주의

차량 주변이나 지하주차장은 피하세요. 길고양이가 올라가면 차량에 손상이 생길 수 있습니다.

- ▶ 통행이 적고 청소가 쉬운 안전한 장소로 옮겨주세요.

겨울집은 따뜻하지만 안전하게!

스티로폼과 짚이면 충분히 따뜻해요. 전기열선·난방기 사용은 화재 위험으로 절대 금지!

- ▶ 단열재만 사용하고, 겨울이 끝나면 철거하세요.

밥자리 청소는 기본 예의

먹은 뒤엔 밥그릇과 음식물은 바로 치우기! 잔반을 방치하면 악취·해충·민원이 생기고, 심하면 위생관련 법 위반으로 처벌될 수 있습니다.

배설물은 함께 정리해요

길고양이 배설은 자연스럽지만 놀이터·공원 주변은 청결 관리가 필수예요.

- ▶ 어린이 시설 근처에는 밥자리나 쉼터 설치를 피하세요.

안전한 돌봄을 위한 대응 안내

돌봄은 불법이 아니지만 폭언·폭행·협박을 받았다면 법적 보호를 받을 수 있습니다.

- ▶ 직접 대응하지 말고 112나 지자체에 신고하세요.

학대는 명백한 범죄입니다

길고양이는 동물보호법상 보호를 받는 동물이며, 학대 시 처벌 대상이 됩니다.

- ▶ 학대 장면을 목격하면 증거를 확보하고 바로 신고하세요.

함께 지키는 길, 따뜻한 공존

깨끗한 관리와 안전한 배려만으로도 사람과 길고양이가 모두 편안한 동네가 됩니다.



길고양이 돌봄 가이드라인 전문보기

자세한 지침과 법적 안내를 확인해 보세요.